

서울경찰청 경승단 나라 위한 기원법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승단(경승실장 토진, 조계사 주지)은 5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기원 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토진 스님, 서울지방경찰청 경승 김명제 스님(판문사 주지),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자승 스님은 법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했다. 보살의 병은 이처럼 대자비 때문에 나는 것인 만큼 시민과 경찰의 병을 함께 고쳐 줄 수 있다"며 "이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꽃피우는 경찰이 있어 불국토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며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연꽃 향기 가득하도록 정법과 자비를 전해 서울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토진 스님은 대화사에서 "경찰처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치안 유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성을 순화시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불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서민의 치안을 위한 상항실이 경찰청에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상항실은 조계사에 있다"고 말했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및 경승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3500명 대형법당 2년내 완공

조계종 군종교구 4일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이 5월 4일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부대중의 불사후원 역량 결집에 나섰다. 발대식에서 자광 스님은 "3500명을 수용하는 대형 법당을 2년 내에 완공해 장병 포교의 전당 1번지로 매년 수백불자 10만명 이상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격려사에서 "신축불사를 된 군장병들에게 안정된 정신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호국하는 길"이라며 "법당 건립을 위한 국방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비좁고 열악하며 오래된 법당에서 추위와 더위에 힘들게 법회를 보던 장병들이 이제 편안하고 따뜻하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당 설립은 불자들의 사명이다.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신축불사에 불자들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불사 증명법사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중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혜승 스님, 불사 자문위원장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법주사 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이 5월 4일 봉행됐다. 신축될 법당 부지 앞에서 스님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기존 법당은 리모델링 된다.

지 노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건봉사 주지 도후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전선정사 주지 영진 스님, 안국선원·조계사·도선사 등 각 사찰 신도회, 교계단체 대표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대식에서 불사금을 약정·전달했다. 자승·혜승 스님, 주호영 특임장관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안국선원 10억, 구자선 건축위원장 2억,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3억, 화엄회 성공 스님 1억, 원광사 2000만원,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한마음선원·등명 낙가사·육전암 신도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공동 문화 범교종 회장이 각 1000만원을 약정했다. 호국연무사는 올 9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1층 2800석, 2층 700석으로 총 3500석으로 현재

1500명 수용인원의 2배 확장됐다. 불사비용은 총 100억원으로 매년 50억원 불사후원금 모연에 나선다. 훈련소 증정불사후원금으로 5억 7845만 2001원(4월 30일 기준, 이자포함)이 조성됐고 약정 금액만 30여 억원이다. 한편, 최근 연무대 훈련소에는 120억원을 투입해 5000여 명이 수용가능한 극장식 성당이 2009년 9월 세워졌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100자 뉴스

지혜로운 여성 배금자 변호사 초청 공개특강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은 2010년 5월 4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배금자 변호사 초청 공개특강을 진행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배 변호사는 "담배회사 소송 이후의 겪었던 고난이 나를 독경, 염불 등의 수행으로 이끌어 갔다"며 "잘 나가는 성공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조계사 풍성한 어버이날 경로행사 개최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 행사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가 5월 7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조계사가 주최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조계사 불교대학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문화 행사를 비롯한 갖가지 효 실천 행사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화동 풍물패'와 '경찰악대' '조계사 무용단', '인기가수 이자연의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입장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자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이나은 기자

신홍사 강원삼성병원과 의료비 감면 협약

설악산 신홍사주지 우승(는 5월 4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중 스님이 서명한 의료비 감면 협약을 강원삼성병원(병원장 차성철)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강원삼성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중 외래 및 입원 진료비 10%, 종합검진은 20%를 할인받게 됐다. 주지 우승 스님은 "조계종 신도멤버십 의료기관 협약과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눔과 소통을 강조한 중단의 기조를 사회로 확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동국대 산하병원, 남양주 한방병원에 이어 의료기관 중 세 번째로 이뤄졌다. 조동섭 기자

진흥원 대원상 후보 공모

포교·콘텐츠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제8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진흥원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가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포교개념으로의 변화, 새로워진 접근 방법의 창출 및 저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지금까지 포교분야에서 개인·단체·특별상으로 시상했으나 올해부터는 포교·콘텐츠 부문으로 나누어 승·재가 개인 및 단체별로 시상한다. 포교대상(부문 I)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포교활동을 전개해 업적이 많은 스님 및 승가단체와 불교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재가단체를 대상으로 상액과 상금이 1000만원씩 전달된다. 콘텐츠대상(부문 II)은 △스

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큐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인포테인먼트 △작곡 연주 공연 △전시 △기타 관련 분야에서 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포교대상(부문 I)은 7월 1~30일, 콘텐츠대상(부문 II)은 10월 1~29일이다. 공모서류는 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추천 양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02)719-1855, 719-2606 조동섭 기자

“감사해요 히마찰”

다람살라 망명정부 수립 50주년 기념행사

“스물세 살에 북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망명한 나는 다람살라에서 가장 오래 투숙한 손님입니다.”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히마찰에 감사해요(To Thank Himachal)' 행사가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다라메라 광장과 남갈사원 두 곳에서 거행됐다. 달라이 라마가 북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 다람살라에 처음 발 딛은 1960년 4월 30일에 맞춰 티베트 망명 정부가 주 정부에 감사하는 행사

를 열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망명해 처음 임시로 머문 곳은 북인도 우따라프라차(Uttaranchal) 주의 작은 마을 마수리(Mussoorie)였다. 그리고 남인도의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에 티베트 난민을 위한 정착촌을 세운 받게 된다. 그러나 티베트 본토와 거리가 너무 멀었고, 고산 지역에서 살아오던 전통 풍습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인도 북부 산간 마을 히마찰프라데시 주 과거 영국인들의 휴양지였던 다람살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다람살라에 티베트 난민에 의한 망명정부가 수립되면서 인도와 티베트는 불교의 공감대로 깊은 인연의 끈을 엮어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 다람살라에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



달라이 라마는 히마찰 주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불화를 선물했다.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연잎 찻밥 핫차 판매 제다 실습 차문화 연수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많은 5월, 무안 회산백련지 인근에서 생산된 연잎으로 정성껏 찐 연잎찰밥을 대접하세요.
연잎찰밥 10개 30,000원 냉동포장 제조원: 일로농협 판매원: 초의차사업단

- 차씨를 무료로 드립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4F에서 무료시음 차씨 보급 행사를 합니다. (4월 15일부터~5월 31일) ※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070-4107-8654

2010년 봄 핫차 판매
이른 봄 어린 찻잎 중에서도 좋은 찻잎만을 부처님 모시듯 고르고 골라 만든 초의신다! 특허출원과 함께 세계녹차콘테스트 "최고금상"을 수상 했습니다.
"다성초의차 신다 핫차 판매 합니다." 초의신다 100g 100,000원
"초의신다의 정통 제다법으로 만든 다성초의차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성초의차 우전 70,000원 세작 50,000원 중작 30,000원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장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차 종류
 - 2010 핫차(녹차) · 청차 · 황차
 -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숙박비무료
※ 스님들께는 제다실습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차문화연수
초의선사 행다법 한국의 차문화사 차의 정신, 다도관 한국전통 행다법의 역사와 방법 초의선사 헌다의식
차에 관한 내용으로 석용운스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 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단체일정에 따라 원하는 내용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비용 1인 1박 2일 2만원~3만원.
※ 초의선사(전남 무안군)에서는 연중 무휴로 차문화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 입금: 농협 635077-55-000018 (사)초의학술문화원 |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 전화: 061-285-0301, 2 | 팩스: 061-285-0304 | choyeetea.co.kr | 후원: 무안군